

제52회 세계기상의 날 특집 속초기상대 동네예보관 박수진씨

# 읍·면 날씨 3시간마다 제공

동네예보관 총 4명, 하루 2명이 12시간씩 근무 ... “피곤하지만 보람 있어요”

기온이 많이 상승해 봄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도 가끔 눈이 내리는 들쭉날쭉한 날씨로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게 만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동북부지역은 특히 내륙쪽의 높은 산과 길게 늘어서 있는 바닷가로 인해 일기가 불순한 대표적인 곳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동네 예보관이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한다.

제52회 세계 기상날의 날(23일)을 맞아 우리 지역의 기상을 책임지느라 여념이 없는 속초기상대 소속 동네예보관 박수진씨(32세, 사진)를 지난 20일 만났다. 박씨는 어김없이 기상관측으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하루 2명에서 12시간씩 휴식없이 풀근무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전하는 기상자

료가 거의 맞아 떨어져서 기상으로 인한 재해예방과 손실을 줄였을 때 피로가 확 날아갑니다.”

10년째 동네예보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씨는 올해 1월 속초기상대로 발령을 받았다. 현재 속초기상대는 4명의 동네예보관이 근무하고 있다.

그녀가 맡고 있는 동네예보관의 업무는 고성·속초·양양 11개소에서 레이더식 파랑계, 황사관측장비, 초음파적설계 등의 최첨단 기상관측 장비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수집해 기상청에 올리면 슈퍼컴퓨터가 다양한 기상모델을 만들어 다시 속초기상대로 내려 보내게 되는데, 이 때 다양한 모델을 확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상예보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네예보관의 정확한 예측은 131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읍·면·동의

날씨를 3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주민들은 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속초기상대에는 지층별 대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풍선모양의 고층기상관측기구인 레원존대를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갖추고, 대기의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고 아무리 철저한 예측을 한다고 해도 매년 정확한 기상예보가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인간이 자연의 힘을 따라 갈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예측을 통해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저희 예보관들은 조금 피곤해도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윽고 그녀는 “기상예보는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예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원광연 기자



## “젊은층 정착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해 달라”



거진읍 성인엽씨(32세)

저는 거진항 어촌계 활어회센터 옆에서 대일잡화를 운영하는 성인엽(32세)입니다.

30대인 제가 고향의 선·후배들과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젊은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고성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젊은층의 인구는 날로 줄어 추진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젊은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50~60대 이상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경로당 건물이 있는 데도 낡았다고 많은 돈을 들여 통합경로당을 신축해주고, 일자리도 노인분들 위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층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없으며,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부족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암울한 비전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야구, 축구, 족구 등 동호회 활

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2년전 도민체전에 20대 부문 고성군 축구대표로 출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살고 있는 20대가 모자라 서울 등지에서 출향인 선수를 불러오고, 30대와 40대가 합쳐져서 겨우 팀을 구성해 참가했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20대선수만 구성돼 참가했다군요. 이리다간 10여년이 지나면 20대 고성군 대표의 아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지역에는 운동에 재능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시설 등에 투자해서 대회유치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스포츠산업과 연계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만명이 넘는 속초시의 1년예산이 2,700억여원, 3만명의 고성군의 1년예산이 2,370억여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고성군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인구만 놓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구에 비해서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차를 타고 가다가 시군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걸어놓은 속초시 1인당 250만원, 고성군 1인당 657만원이라

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속초보다 1인당 400여만원이 더많은 고성 주민들의 삶의 질이 속초시보다 더 좋을까요? 저를 비롯한 젊은층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군통합 문제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성군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속초시에 흡수되는 거 아니야 하는 암담한 생각마저 듭니다. 젊은층에 대한 정책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가 적다고 표가 적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윽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젊은층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젊은층의 생각을 기성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고성군의

대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혁신을 주저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밝은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젊은층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임진년 새해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주민발언대'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당 : 원광연 기자(☎681-1666, 010-5379-0890)